



“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 형제적 일치에 이르게 한다....”.
(생활규칙 24 항)



2019 년 12 월 9 일 22 시(현지시간)
카시아스 도 술/RS (브라질)에서
향년 67 세, 38 년 수도생활을 하신 우리 자매
소엘리 테레지나 브랑코 수녀님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하루의 끝에, 교회가 끝기도를 바치는 동안 선한목자께서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언제나 찾으시는 자비로운 아버지의 품 안에 우리 자매가 자신을 맡기도록 우리 소엘리 수녀님을 당신께로 부르시어, “진리의 하느님, 당신께서는 저를 구원하셨나이다, 당신의 손에 저의 영혼을 맡기나이다.”라는 화답송을 완성하셨습니다.

소엘리 수녀님은 아버지 오스발디노와 어머니 에칠다의 딸로 1952 년 4 월 11 일, 싸오 호세 도 체리토-성 카타리나(브라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1952 년 5 월 3 일에 Nostra Signora Dos Prazeres, 라게스 대성당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소엘리는 2 남 3 녀 중 첫째였습니다.

1971 년 2 월 21 일 카시아스 도 술 – 성 레오폴도에서 입회하셨고 같은 곳에서 1979 년 2 월 6 일 입수련하셨습니다. 1981 년 2 월 2 일 카시아스 도 술 – 성 레오폴도에서 첫서원을 하셨습니다. 소엘리 수녀님은 유기서원기까지 포르토 알레그레/RS 에서 본당교리교육 담당을 하였고 제툴리오 바르가스/RS 에서 사목종사자 담당을 하셨습니다. 1989 년 1 월 15 일 카시아스 도 술 – 성 레오폴도에서 종신서원을 하셨습니다. 1989 년부터 1994 년까지 캄포 그란데/MS 공동체에서 지원자 양성을 하였고 지역공동체와 교회 일치 그룹의 아나트리체이셨고, 작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수녀님들의 증언에 의하면 소엘리 수녀님은 다음과 같이 묘사됩니다. 수녀님은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는 선한목자의 꿈을 자신의 것으로 하여 생명에 열정적인 분이셨습니다. 수녀님이 지나간 곳 어디에서든지 생명의 씨를 뿌리고, 생명을 나누고, 생명을 위해 투쟁했던 것

을, 특히 가장 작은 이들과 이민자들을 위해 그렇게 할 것을 찾았습니다. 수녀님은 어떤 분야에서든, 특히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무방비 한 사람들을 향한 모든 종류의 불의를 매우 싫어했습니다. 창립자 야고보 알베리오네 신부에게 열정적이었던 수녀님은 일상 생활에서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 기도와 묵상의 대상이 되도록 그분처럼 노력했습니다. 수녀님의 수련장 수녀님으로부터 "생명에 순명"하는 것을 배웠던 것을 항상 반복하셨습니다. 열정적이고 진정한 영적 어머니인 수녀님은 혈육의 가족과도 건강한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았고 가족에 대해서도 사랑과 인간성의 모범이되면서 모든 자매들에 대한 사랑과 수도가족에 속하는 강한 정신으로 구별되었습니다¹.

1995 년부터 소엘리 수녀님은 로마 비아 트라베르사리 공동체에서 빠스또렐레가 내부적으로 조직했던 카리스마 코스의 두번째 2 년을 하였고 동시에 교황청립 그레고리안 대학에서 교의신학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는 바오로 가족과 교회의 강한 국제체험이었고 소엘리 수녀님이 언제나 이 은총의 시기를 강하게 사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1999 년 브라질로 돌아가 코레이아 핀토/sc 공동체에 파견되어 특별한 방식으로 사목 종사자 양성을 돌보셨습니다. 2001 년에 관구 평의원이자 비서로 임명되시어 카시아스 도 술-바이로 칭켄테나리오로 돌아가셨습니다. 2005 년에서 2012 년까지 연이어 두 번의 임기로 관구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통솔로 봉사하는 이 기간 동안 소엘리 수녀님은 자매들을 향하여 자신의 모성과 자매됨을 깊이 사셨습니다. 그분의 관구장 임기 동안 암진단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통솔 임무를 지속하시면서 여러 항암요법들을 큰 용기로 마주 하셨습니다.

수녀님들은 그분이 병환의 시련을 사셨던 것을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지탱된 소엘리 수녀님의 힘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시기 동안 수녀님은 암에 맞서 싸웠고 끝까지 싸우면서 언제나 생명에 대한 임무와 사랑에 대한 대단한 의지의 힘을 보여주셨습니다. 고통에도 불구하고 “저는 괜찮아요. 지나갈 거예요.”라고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병은 그분의 사명을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았고 언제나 할 수 있는 만큼 관구와 수도회를 위해 봉사하셨습니다. 사명에 있어 결코 인색하지 않았고 자신을 소진하였습니다.

2014 년에 소엘리 수녀님은 캄포 그란데/ms 공동체의 성소자 공동체에서 젊은이 담당을 하며 사목 활동을 다시 하셨습니다. 바오로가족 협력자회 선한목자 예수님의 벗들 양성에 큰 열정으로 헌신하였고 2018 년 9 월에 건강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바오로 가족이 계획한 대회년을 거행하기 위해 협력자들을 로마로 동반하였습니다. 그러나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2017 년에서 2019 년까지 카시아스 도 술-테르체이라 레구아로 이동하여 선한목자예수 공동체를 조정하는 것 외에도 큰 사랑으로 양성했던 바오로가족 협력자회 책임을 계속하였고 마지막 순간까지 동반했으며 카리스마 숙고 팀의 일원이었습니다.

¹ 증언의 전문은 첨부문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소엘리 수녀님은 병환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내적 힘과 사도적 열정으로 자신의 사목 전문성을 봉헌하고 맡겨진 공동체 봉사를 행하시면서 마지막까지 활동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병환의 시기 동안 소엘리 수녀님을 사랑어린 모성적 돌봄으로 지탱해 주셨고 가능한 모든 의료요법을 수녀님께 제공해 주신 수녀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복자 야고보 알베리오네의 전구를 통해 소엘리 수녀님의 건강의 선물을 청하면서 신뢰 어린 기도에 일치해 준 수도회 모든 자매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소엘리 수녀님께 생명과 성소의 선물을 주시고, 수녀님 안에서 그리고 수녀님을 통해 우리 수도 가족과 사목 사명 안에서 일하신 모든 것에 대해 선한목자에게 우리의 축복을 들어올립시다. 수녀님을 성부의 자비에 맡겨드리며 바오로 가족의 성소의 해에 “좋고 건강한” 성소자들을 주시도록 수녀님의 전구를 청하고 바오로가족 협력자회 선한목자예수님의 벗들의 여정을 특별한 방식으로 수녀님께 맡겨드립니다.

총원장 아민타 사르미엔토 푸엔테스

2019 년 12 월 9 일, 로마에서

